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성경: 누가복음 2장 8-20절

Tag: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눅2:8-2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

어제 운전 중 라디오에서 캐롤이 들려왔다.(실버벨)

빙크로스비 실버벨

<https://www.youtube.com/watch?v=jHefeA-hyMA>

순간 캐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세상은 삭막해져서, 전혀 성탄절 같지 않은 느낌인데, 캐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놀라웠다. 캐롤을 듣는데 감동까지 되다니, 이것이 더 신기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밤을 세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괴테가 말했다.

다음 곡은, 트윈폴리오의 블루 크리스마스;처음 유심히 들었는데 매우 슬픈 곡이었다.

홀로 앉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즐거웠던 그 시절 그리워
이 밤이 새도록 쓸쓸히 부르는 추억의 노래 사랑의 노래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대인 줄 알면서 그래도
이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다리네 외로히 보내는 블루 크리스마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x3

<https://www.youtube.com/watch?v=Vwzrz5A0D3I>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크리스마스구나...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까.

내가 가서 위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삭막한 중에 캐롤을 들으니,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용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아무런 의미도 모른채, 그저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는 날로 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

로 참기 어려운 날이었지 않았겠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국에 깨닫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예전처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정치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분개하고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 예배 조차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예배를 추구하며 살아왔지 않았나?

성탄절은 왜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었는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인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단지 동지가 지나고,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했었는데, 교회가 세속적인 날을 거룩한 날로 바꾸었다. 교회가 세속적인 우상숭배의 날을 정복한 셈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고자 하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이었던지가 깨닫게 되었고, 복된 날이 되었고,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 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주고 받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복된 소식이 되기를 소망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전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했다. 전구를 장식하면서 나도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 받는 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기도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아니겠는가?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오용하고 남용했다. 그런 오용과 남용을 막는데 코로나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의 크리스마스 정신은 온전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삶이 멈추어선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하려고 오후에 서울역으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삶을 보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동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직은 들녘에서 양떼를 먹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으리라.(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마스는 겨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났다. 하늘이 무대가 되었고, 양떼와 그들을 지키던 목동들이 관객이 되었다. 그렇게 목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었다. (비록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 내 상상력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들은 요셉의 친구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에는 어떤 이유로 요셉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고향에 돌아왔고, 어렸을 적 동무들로부터 아들의 탄생을 축하받고 있는지 모른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탄 첫날밤의 천사들의 노래가 세상에 전파되었다. (노엘, 노엘 ~)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들, 성탄의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